

# 분류표의 시대구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ronological Division in Classification

정해성(Hae-Sung Chung)\*\*

### <목 차>

- |                      |                 |
|----------------------|-----------------|
| I. 서론                | 5. KDC의 시대구분    |
| II. 시대구분의 의미         | IV. 시대구분에 대한 논의 |
| III. 분류표에서 사용하는 시대구분 | 1. CC의 시대구분     |
| 1. CC의 시대구분          | 2. 문학류의 시대구분    |
| 2. UDC의 시대구분         | 3. KDC의 시대구분    |
| 3. BC의 시대구분          | V. 결론           |
| 4. DDC의 시대구분         |                 |

### 초 록

시대구분(연대범주)은 주제와 결합하여 주제의 범위를 특정 연대(시대)로 한정하는 방법으로서 분류표에 따라서 사용기법을 달리 하고 있다. CC와 UDC는 공통구분표를 통해 일관성있고 분명한 시대구분이 가능하다. DDC와 KDC는 표준구분, 역사류, 문학류에 따라 시대구분 기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주제어 : 시대구분, 연대구분, 시대구분표, 연대범주

### Abstract

Time(Period table) is the chronological factor in a subject. Classification schemes are using the period tables for represent the time. CC and UDC's common auxiliary of time tables are consistence and clear. DDC and KDC are using the different way, though the notation is complicated.

Key Words : chronological division, period table, time isolates

\* 본 연구는 2004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hschung@cu.ac.kr)

· 접수일 : 2004. 11. 21 · 최초심사일 : 2004. 12. 5 · 최종심사일 : 2004. 12. 10

## I. 서론

분류의 원리는 유사한 자료를 동일한 위치에 모을 수 있어야 하고 핵심(개성), 재료(소재)에 너지, 공간과 시간과 같은 범주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열거되는 주제는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며, 분류체계의 무한한 전개 능력과 변화를 보여 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하고 각 주제의 배열이 일관성 있는 순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바와 같이 분류체계는 현존하는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것이 예상되는 모든 형태의 주제를 기술하고 체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분류표는 용어와 주제, 또는 개념간의 관계를 기호로 제시한 체계표이다.<sup>2)</sup> 서지분류의 방법에서 자료를 서가상에 체계적으로 구분 배열하고, 주제에 따라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서가 분류의 방법의 분류체계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현대 분류표들은 전체 지식을 주류로 구분하고 각 주류는 다시 핵심(개성), 재료, 에너지라는 세 개의 독자적인 범주로 구분되며, 각 주류마다 이들 범주의 하위 개념은 상이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그런데 각 주류에 공통적으로 공간과 시간 그리고 언어 범주가 사용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공통구분표가 마련되고 있다.

이들 공통구분표 중에 연대(시간, 시대)범주와 지리(공간)범주는 대부분의 분류표에서 주제와 합성이 가능한 것으로 연대 범주는 특정 주제와 결합하여 주제의 범위를 특정 연대(시대)로 한정하는 방법으로서 분류표에 따라서 사용기법을 달리 하며, 연대범주를 합성하여 특정 주제에 속하는 상이한 개념을 연대순으로 배열할 수 있다.<sup>3)</sup>

그러나 현행 분류체계에서는 콜론분류표(Colon Classification : 이하 CC로 칭함)와 국제십진분류법(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 이하 UDC로 칭함)를 제외한 다른 분류체계, 특히 우리나라의 표준분류표인 한국십진분류법(이하 KDC로 칭함)은 듀이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이하 DDC로 칭함)과 유사하게 시대구분을 위한 공통구분표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분류체계<sup>4)</sup>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대구분의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KDC

1) Mildred Harlow Downing,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Jefferson, NC : McFarland, 1992), p.89.

2) 김태수, *분류의 이해*(서울 :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0), p.205.

3) 상계서, pp.123-124.

4)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 분류표는 다음과 같다.

Dewey,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2th ed., edited by Joan S. Mitchell, Julianne Bell, Giles Martin, Winton E. Matthews, Jr., Gregory R. New. (Dublin, OH, OCLC, 2003.), 4 vols  
Ranganathan, S. R. *Colon Classification*. 7th ed.(Basic and Depth version), revised and edited by M.P.Gopinath(Bangalore :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1989).

Mills, J. and Broughton, V. *Bliss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Vol. 1. *Introduction and Auxiliary Schedules : Other Classes*(London : Butterworth, 1977- )

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시대구분 방법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시대구분의 의미

분류에서 지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단일 특성에 의한 단일 범주화만이 아니라 연속적인 하위 범주화가 필요하다. 이때 상호 배타적인 범주화를 위해서는 한번에 하나의 특성만을 적용하여 하위 범주화로 전개한다. 하나의 특성을 적용하여 개념을 구분하게 되면 대등한 수준의 개념 즉 동위개념(coordinate classes; array of class)을 얻을 수 있고, 상이한 특성을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구분하게 되면 일련의 하위개념 즉 하위류(Subordinate classes)를 얻을 수 있다.

동위류는 지식구조에 포함되는 동위수준의 모든 개념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위류가 구성되면 분류표에서는 이를 직선형으로 배열하게 되는데 이들의 배열순서는 포괄적인 주제영역으로부터 점차 구체성을 지닌 특수주제로 이용자들의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순서를 결정하는 일반원칙 안에 시대순의 원칙과 진화순의 원칙이 포함된다.

시대순의 원칙은 주제의 출현시대가 상이한 경우, 시대보다 더 중요한 사항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대순서로 배열하는 원칙으로 CC에서는 연대기호를 적용하여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진화순의 원칙은 동일 계열에 속하는 주제나 구분지가 상이한 진화 단계에 속하고 진화순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고려할 수 없을 경우 진화순서로 배열한다는 원칙이다. 시대순서와 진화순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시대순서를 우선한다. 이때 시대란 특정 사건의 발생연대가 다르고 이들 사건 간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진화순서에서는 사건 간에 상호 연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시대순과 다르다.<sup>5)</sup>

Ranganathan은 분류에서 합성주제나 복합주제의 순서는 미리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순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더욱이 심층수준에서는 주제의 순서뿐만 아니라 주제에 속하는 패킷의 순서에서도 이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특정 패킷에 속하는 구체적인 개념의 특성 순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다섯 가지 기본범주에 대한 가설과 원칙을 제시하였다.<sup>6)</sup>

이에 따라 주제가 속한 주류를 결정하고 나면 해당 주제를 기본범주로 분석하게 되는데 기본범주란 지식영역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으로서 이 지식체계는 다시 긴밀히 결합된 각각의 주류와

國際十進分類法, 韓國語簡略版(서울 :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1973).

韓國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編, 韓國十進分類法, 제4판(서울 : 동협회, 1996).

5) 김태수, 상계서, pp130-134.

6) Ranganathan S. R.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1967), p.397.

관련을 가진다.<sup>7)</sup>

Ranganathan은 개념은 핵심(개체, 개성), 재료, 에너지, 공간, 시간이라는 다섯 가지의 범주에 속하며, 이 기본 범주를 패킷으로 표현하고 패킷은 하위구분지(isolate)로 구분되고, 이 하위개념을 지식의 최종 단위라고 이해하였다. 이 다섯 개의 범주중 공간과 시간 범주는 반복 출현이 가능하며 모든 주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범주로 규정하였다.

기본범주의 순서는 구체성 감소의 순서인데 개체범주는 모든 주제에 출현하며 가장 구체적인 범주인데 비록 구체적인 범주이면서도 역설적으로 식별이 가장 어려운 범주이며 시간 범주는 가장 추상적이지만 식별이 가장 용이한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분류표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류기호나 개념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한정하는데 확장기호를 사용하여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CC에서는 분류기호를 개별화하기 위하여 연대기호를 비롯하여 주제기호, 지리기호, 문자기호, 조기성기호, 고전기호, 한정기호, 숫자기호등을 사용하는 데 이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구분지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주제가 출현하면 새로운 개념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개념을 한정해서 동일한 기호를 합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일관되고 유용한 순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동일한 개념과 기호를 유지할 수 있다.<sup>8)</sup>

### Ⅲ. 분류표에서 사용하는 시대구분

#### 1. CC의 시대구분

CC에서 시간 범주는 다섯 가지 범주 중 가장 인식하기 쉬운 범주로<sup>9)</sup> 주제 분석과정에서 주제가 지닌 연대나 시대적 특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20세기 소설’, ‘중세과학’ ‘과거 10년간의 경제발전’ 등의 주제에서 시대나 연대적 요소를 의미한다.<sup>10)</sup>

CC는 특정 연대는 물론 겨울이나 주간, 야간과 같은 개념도 표현이 가능하며 구체성 감소의 순서로 범주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추상적인 시간 범주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다.

7) 김태수, 상계서, p.193.

8)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7th ed.(Basic and Depth version), revised and edited by M.P.Gopinath(Bangalore :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1989), p.43.

김태수, 상계서, pp.214-215.

9) S. R. Ranganathan, 1967, *op. cit.*, p.399.

10) Satija, M. P. *Colon Classification*, 7th edition : A Practical Introduction(New York : Ess Ess Pub. 1989), p.14.

눈의 여행 U8'p8

기원전 100년의 인도사 V44'C99

자유를 위한 투쟁(1857에서 1947까지) V44:51'N47←M57

인도 도서관의 장래 2,44N→

CC에서는 지리범주 아래에서 국제기구에 기호를 배정하거나 적절한 지역을 연대로 한정하기 위해 연대기호(Chronological Device : CD)를 사용한다. 이 연대기호는 시간이나 연대가 개체의 중요한 혹은 내재적인 요소인 경우, 출현연대(epoch of origin)를 합성하여 표현한다. 때로는 구분지를 연대기호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CC에서 시대구분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 가) 문학류에서 저자의 개별화
- 나) 어학류의 인공언어의 개별화
- 다) 종교에서 교파의 개별화

Q68J3 침례교 Q68L4 신교

Q78M9 아하마디아 이슬람교파

- 라) 수학, 물리학, 의학, 심리학, 교육, 경제학, 종교, 역사에서 시스템의 개별화

CC에서 모든 시스템 패킷(SmF)은 연대기호로 구성되며 주류를 확장함으로써 가능하며, 기하학의 시스템에서 규범류 B6은 연대기호로 세분된다.

B6M 비유클리드 기하학

B6M3 타원 기하학

B6N 선 복소수 기하학

- 마) 수학에서 방정식, 함수, 급수의 개별화
- 바) 예술에서 양식의 개별화
- 사) 공통구분지의 개별화 예컨대, DDC(1876)를 CC에 따라 분류하면 2:51M76이 된다

기본주제(BC)= 문헌정보학(2)

분류=[E][2P] 패킷으로 :51

연대범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발행연대를 필요로 하며 DDC는 19세기(1876)에 간행된 최초의 분류표로 M76이 된다.<sup>11)</sup>

시대(범주)를 표현하는 개념은 두 가지 수준([T1],[T2])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연대와 절기를 의미한다. 첫 번째 기호인 A는 지질학적 시간을 범주화한 것이고 B로부터 S까지의 기호를 사용하여 특정 연대나 기원전 9999로부터 기원후 2399까지의 시대<sup>12)</sup>를 표현할 수 있다. Z은 미래의 시대를 위해 마련되어 S(2300-2399)이후의 시대에서 계속 전개하면 Y(3199년)까지 전개할 수 있다.

11) 김태수, 전계서, pp.215-216.

12)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7th ed. p.72.

##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5권 제4호)

이 범주의 사용법은 E로부터 S에 이르는 연대는 기호 3자리를 사용하여 특정 연도를 표현한다. 첫 번째 기호(로마자)는 세기를 표현하고, 첫 번째 숫자는 10년대를, 마지막 숫자는 특정 연도를 의미한다.

사용 예;

1526 J26

1901 N01

1800 M00

1920 N2

제2수준의 시대 패킷[T2]는 계절이나 도량형적 시간을 의미한다. [T2]는 주로 지리(U)에서 사용한다.

겨울철의 소먹이 KZ311 :1'n7

눈 오는 철에 인간의 이동 U41'p8

1981년 우기의 습도 U285'N81'p5

그러나 고생대의 고식물학과 고동물학의 경우 시대는 시대구분(Time isolates)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류인 층위학(H5)에서 취한다. 이 경우 H5를 A로 대치한다.

실루아기의 고등동물 H6'A23

(실루아기는 H523인데, H5를 A로 대치하여 H523은 A23이다)

신생대의 식물 I:8'A4

## 2. UDC의 시대구분

UDC에서는 時間 보조기호(Common auxiliary of time)를 사용하여 자료의 내용이 시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을 때 “ ”(겹따옴표)의 기호를 사용하여 시간을 표시하고 있다. 연대는 서력기년을 사용하며 연월일 단위로 표시 할 수 있다.<sup>13)</sup>

시대(간)의 분류는 주제가 지니고 있는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며, 자료의 출판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류의 시대구분은 94/99에 각국에 따라 세분 전개되어 있는데 한국의 경우를 보면,

예 951.9 한국사

.901 고대(~전 57년)

원시, 고조선, 한사군시대

13) 國際十進分類法, 韓國語簡略版(서울 :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1973), p.22.

- .902 삼국시대(전 57 ~ 936년)  
통일신라, 발해, 후삼국시대를 포함한다.
- .903 고려시대(918~1392)
- .904 이조시대(1392-1910)
- .9041 전기(1392~1567)  
태조~명종
- .9042 중기 (1568~1724)  
선조~景宗
- .9043 후기(1725~1910)  
영조!~순종
- .905 일제침략시대(1910~1945)
- .906 대한민국시대(1945~ )
- .9061 군정시대(1945-1948)
- .9062 제1공화국(1948-1960)
- .9063 제2공화국(1960-1963)
- .9064 제3공화국(1963-1967)
- .9065 제4공화국(1967-1972)
- .9066 제5공화국(1972- )<sup>14)</sup>

선사시대의 구분은 선사학(571)의 선사시대 유물 571(11)

571(11) 선사시대의 유물

(11)을 551.7과 같이 세분한다.

지질시대에 관하여는 層位學, 層序學, 地史學(551.7)의 은생대, 캄브리아기에서 551.79 제4기(현재-1MYBP),<sup>15)</sup> 그리고 미술사상의 시대에 관하여는 7.03(양식과 영향)에 전개되어 있다. 예컨대

- .031 有史前의 예술, 고대 및 현대의 원시예술
- .032 고대문화의 예술
- .033 중세 기독교, 회교의 예술과 양식
- .034 르네상스; 1830년까지의 근세의 양식
- .035 르네상스 이후, 주로 19세기의 양식, 복고주의...
- .036 현대의 양식
- .039 각종 관점에서 본 양식

14) 상계서, pp.283-284.

15) 상계서, p.124.





- “71” 진전, 발전
- “76” 시기적 방향성; 가역성, 비가역성
- “79” 조속성, 빠르거나 늦은 현상<sup>17)</sup>

이상과 같이 UDC는 시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모든 개념을 기호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전개하고 있다.

한편 문학류의 전개는 시대 패시를 사용하지 않고 언어 패시와 형식 패시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형식 패시는 하위 형식 패시에 의해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저자명(작가명) 또는 그 생략형(저자명의)을 붙여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도록 되어 있고, 시대구분이 필요한 경우는 시간 보조기호를 사용하여 전개할 수 있다. 이는 CC에서 시간범주를 사용하는 경우와 같다.

### 3. BC의 시대구분

BC의 시대구분은 보조표 4(Auxiliary schedule 4 : Periods of Time)를 사용하여 특정 주제를 위한 시대구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주제에 대한 역사적인 기간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데 공통구분(보조표 1)의 기호 “7”<sup>18)</sup>을 선행하여 합성하며, 보조표 4의 기호는 알파벳 문자 A/Z로 구성되어 있다<sup>19)</sup>.

BC는 장서수가 많은 경우에도 적당하고 정확한 배열을 할 수 있는 표준적인 구분표인 보조표 4A, 4A보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모든 시대가 열거되어 있으나 간단한 보조표 4B, 그리고 가장 상세한 시대구분표로, 역사의 시대적인 개념을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전개한 보조표 4C등 3개의 보조표로 구성되어 있다<sup>20)</sup>.

4A는 시작하는 연대에 소요되는 기간을 합성할 수 있으며 4B는 BC 초판의 보조표 4를 기준으로 전개되고, 4C는 시작되는 연대와 소요되는 기간을 4A보다 정확하게 시작하는 연대와 소요되는 기간을 합성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해 놓고 있다.

예 : 19세기의 수학

4A의 경우 분류기호 AM7 NP

AM 수학

7 시대구분 지시기호 (보조표 1)

17) *Ibid.*, pp.22-23.

18) BC 공통구분표 1의 기호 7은 History, periods in the subject(see Schedule 4)로 지정

19) J. Mills and V. Broughton *Bliss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Vol. 1. *Introduction and Auxiliary Schedules : Other Classes*(London : Butterworth, 1977- ), p.189.

20) *Ibid.*, pp.190-199.

N	4A의 Table 1 (시작년도)
P	4A의 Table 2 (100년간)
4B의 경우 분류기호	AM7 L
L	보조표 4B의 1800 - 1900
4C의 경우 분류기호	AM7 HAW
H	4B의 Rable 1 (1800)
A	기간을 나타내는 지시기호(보통 4C에 설명이 있음)
W	4B의 Table 2 (100 년간)

시대구분표 3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양자택일의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으며 이들 표의 사용법은 각 주제아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예 : POW (Post-Reformation period of the Christian Church)

Add to POW letters A/Y from schedule 4

따라서 19세기의 기독교 교회

4A의 경우 POW NP

4B의 경우 POW L

4C의 경우 POW HAW

또한 이들 시대보조표의 배열 원칙은 연대순, 그리고 특수한 연대보다 일반적인 연대를 앞에 전개하고, 배열순서는 최근의 시대부터이다.

4A는 C/DE에 열거된 시대를 제외하고 시작되는 연대를 표시하는 Table 1과 소요되는 기간을 표시하는 Table 2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Table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2개의 Table을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4B는 포괄적 분류용으로 완전히 열거식이며, BC 초판의 보조표 4와 일치되나 좀 더 상세하며, 연대순에 따라 소요 기한을 포함시켜 놓았다. 정확한 해당기호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는 기호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상세분류용으로 만들어진 4C는 기원전 4000년부터 서기 2100년 이후까지를 기호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작 년대를 위한 Table1, 소요기간을 나타내는 Table 2, 그리고 Table 1의 C를 상세히 전개시킨 Table 3, 그리고 Table 2의 EC/FS를 상세하게 전개하여 6,400년부터 10,000년 사이의 기간을 표시한 Table 4와 Table 2의 GH/JB를 상세하게 전개하여 2,300년부터 6300년 사이를 표시한 Table 5로 구성되어 있다.<sup>21)</sup>

21) *Ibid.*, pp.193-199.

#### 4. DDC의 시대구분

DDC에서 시대구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은 표준구분의 -0901-0905, 지역공통구분의 -01-05, 역사의 세계사 및 각국의 시대구분, 각국 문학의 시대구분 등이다.

##### 가. 표준구분(Standard subdivision)에서의 시대구분

표준구분 기호 -09(Historical, geographical, persons treatment)아래의 -0901-0905는 시대구분을 위해 전개된 기호로 선사시대부터 기원전 4000년까지를 시작으로 2019년 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전개하고 있다.<sup>22)</sup>

-0901	To 499 A.D.
-09012	To 4000B.C.(선사시대부터)
-0902	6th-15th century, 500-1499(중세시대)
-09021	6th-12th century, 500-1199
-09022	13th century, 1200-1299
-0903	Modern period, 1500-
-09031	16th century
-0904	20th century, 1900-1999
-09041	1900-1919
-09042	1920-1929
-0905	21st century, 2000-2099
-09051	2000-2019
-090511	2000-2009
-090512	2010-2019 <sup>23)</sup>

그런데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세기(-0904) 이후는 10년을 단위로 전개하였으나 21세기는 -09051에 2000년부터 2019년, -090511에 2000-2009와 -090512에 2010-2019를 배정하여 기호의 길이가 6자리나 되는 것은 20세기와 같이 5자리를 10년 단위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구분의 시대구분기호는 보조표 2(Table 2. Geographic Areas, Historical Periods, Persons)의 -01-05 Historical periods에 특수구분의 방법으로 동일 기호를 사용한다.<sup>24)</sup>

22) Dewey,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2th ed., edited by Joan S. Mitchell, Julianne Bell, Giles Martin, Winton E. Matthews, Jr., Gregory R. New.(Dublin, OH, OCLC, 2003), vol.1, pp.210-211.

23) *Ibid.*

24) *Ibid.*, p.217.

예컨대 -01-05 아래에 "Add to base number -0 the numbers following -090 in notation 0901-0905 from Table 1. e.g., 20th century -04"의 지시를 볼 수 있다.

Table 1과 Table 2에 전개된 기호는 해당 항목에 지시가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분류자가 시대구분이 필요한 경우 Table 1의 기호(-09)를 사용하여 전개할 수 있다.

나. 역사류(900)의 시대구분

DDC의 역사류는 일반사(909), 고대사(930) 각국 중세 이후 역사(940-990)로 배정되어 일반사와 고대사, 각국 중세 이후의 역사가 분리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고대사가 중세 이후 일반사보다 뒤에 놓이게 되어 있어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된다. Comaromi 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동일 지역의 고대사와 중세이후사가 분리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다.<sup>25)</sup>

20판 이후부터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의 선택적으로 각국 중세이후 역사에 관련된 고대사 부분을 시대구분으로 배정하여 보완하였다.<sup>26)</sup>

예 :

951 China and adjacent area

951.01-.06 Historical period of China and adjacent areas together, of China alone

.01 Early history to 960

*For ancient history to 420, see 931*

(.011-.014) Ancient history to 420

(Optional numbers; prefer 931)

Add to base number 951.01 the numbers following

931.0 in 931.01-931.04, e.g., Shang dynasty 951.012

.015 Period of Northern and Southern dynasty, 420-581

.016 ...

고대사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연도를 달리하고 있는 점은 일견 논리적이긴 하나 혼란스러운 점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배열순위에 있어서도 지역구분표의 배열순위와 관련성이 없으며, 939에서는 931-938에 배정되지 않은 기타 지역을 지역구분표에서의 대륙구분의 배정순위와 무관하게 배열하고 있다.

또한 고대사 부분에 배정되지 않은 지역의 고대사는 각국의 중세이후 역사와 함께 분류할 수

25) John Phillip Comaromi, *The Eighteenth Editions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Albany, N.Y. : Forest Press, 1976), p.83.

26) DDC 22, Vol.3. p.945.

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고대사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다.<sup>27)</sup> 이는 일관성의 원리에 위배된다.

한편 DDC에서는 패킷 기호 0을 시대를 안내하는 패킷기호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기호(0)가 모든 국가에 일관성있게 적용되지 못하는 것(미국의 경우에는 패킷 기호(0)을 사용하지 않고 실수 1, 2, 3...이 바로 시대구분을 위한 기호로 사용되고 있다)은 DDC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기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예는 문학의 시대구분에서도 볼 수 있다.

- 0905 21st century(표준구분)
- 01-05 Historical period(Table 2)

(For Asian countries(문학의 예))

- (1 Early period to 1858
- (2 1858 - 1947
- (3 1947 - 1999

Class here 20th century<sup>28)</sup>

역사의 예 :

951.9 Korea

- .901 Early to 1392
- .902 Period to Yi dynasty, 1392-1910

973 United States

- .1 Early history to 1607
  - Add to base number 973.1 the numbers following 970.01 in 970.011-970.019, e.g., French explorations 973.18
- .2 Colonial period, 1607

#### 다. 문학류(800)의 시대구분

세계문학전집과 세계문학 비평은 시대구분기호를 Table 1의 구분표를 사용하도록 마련하고 있다.

##### 1) 특정 시대의 문학전집(808.8001-.8005)

특정 시대의 문학전집은 808.8001-.8005와 같이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sup>29)</sup>

27) 李昌洙, 歷史 및 地理類에 대한 組合式分類表의 展開(박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1992), p.127.

28) DDC 22, Vol.3, p.778.

29) Ibid., p.767.

808.8001-.8005 Collections from specific periods

Add to base number 808.800 the numbers following  
-090 in notation 0901-0905 from Table 1

2) 특정 형식 문학전집의 시대구분

808.81-808.88 Collection of specific form 에서 Except for... , add to  
each subdivision identified by \* as follows;

01-05 Historical period

Add to 0 the numbers following -090 in notation  
0901-0905 from Table 1

3) 특정 시대 문학비평

809.01-.05 Literature from specific periods

Add to base number 809.0 the numbers following -090 in  
notation 0901-0905 from Table 1

4) 각국 문학의 시대 패킷은 표준구분의 시대구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각국 문학  
아래 전개되어 있는 시대 패킷을 사용하고 있다.

895.7 Korean literature

PERIOD TABLE

- 1 Early period to 1392
- 2 Yi period, 1392 - 1910
- 28 1894 - 1910
- 3 1910 - 1945
- 4 1945 - 1999

Class here 20th century

For 1900-1910, see 28; for 1910-1945, see 3

- 5 2000 - 30)

그러나 영국문학, 불란서 문학, 스페인 문학의 경우는 임의규정으로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기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 : (For Asian countries

- (1 Early period to 1858
- (2 1858 - 1947
- (3 1947 - 1999

Class here 20th century<sup>31)</sup>

30) *Ibid.*, p.822.

따라서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20세기 영국문학전집은 820.80091이 아니라 820.8003이 된다. 이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양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5. KDC의 시대구분

KDC의 시대구분은 DDC의 예와 같이 표준구분과 역사류(900)와 문학류(800)에서 별도의 시대 구분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 가. 표준구분에서의 시대구분

KDC는 표준구분기호 -09에서-0901-0906은 일반 시대구분으로 사용한다<sup>32)</sup>로 되어 있다.

예 ; -0901 原始時代(1BC까지)

-0901-0906은 一般 時代區分으로 使用한다

모든 주제에 적용할 시대구분은 -0901 원시시대(1 BC까지)로부터 -09069 2090-2099까지 전개하고 있으며, 전개 방법은 -0904 15세기 예서는 세기별(100년 단위)로 19세기까지 구분하고 -0905 20세기와 -0906은 10년 단위로 전개하고 있다.<sup>33)</sup>

### 나. 한국시대구분표

조기표 4는 한국시대구분표로 여기에는 “본표 910.01-.079와 같이 구분한다”<sup>34)</sup>는 지시만 되어 있고 전개는 한국 역사(911.01-079)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KDC 2판(1968)과 3판(1980)에는 기호 (1부터 7까지)에 시대를 배정하여 조기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4판은 911.01부터 911.077까지 전개된 기호에서 1부터 77까지를 시대구분 기호로 사용한다. 그러나 본표 911.078과 911.079는 분류항목이 배정되지 않아 1993년 이후는 모두 077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911 한국에는 “정사류(正史類), 편년류(編年類), 기사류(記事類), 별사류(別史類)는 각각 해당시대에 분류한다. 예; 高麗史 911.04; 國朝實錄 911.05; 懲毖錄 911.0553; 列朝通紀 911.05”<sup>35)</sup>로 시대구분의 방법을 제시하고,

911.01 원시시대

.02 古代(上) -57 BC Ancient history

31) DDC, Vol.3, p.778.

32) 韓國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編, 韓國十進分類法, 제4판(서울 : 동협회, 1996), p.17.

33) 상계서, pp.18-19.

34) 상계서, p.25.

35) 상계서, p.874.

- .03 三國時代 (古代 下) 57 BC-936 AD Sam-Kuk Period
- .04 高麗時代 (中世) 918-1392 Kyoro dynasty
- .05 朝鮮時代 (近世) 1392-1910 Choson dynasty
- .06 抗日時代 (最近世) 1910-1945 Japanese aggression period
- .07 大韓民國時代 1945- Republic of Korea
- ...
- .074 제3,4공화국 (1963-1979)
- .0745 5.18광주민주화운동
- .077 1993-

으로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한국 사정(1993년 이후)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주제에 077을 사용해야 하므로 좀더 세분된 시대구분이 마련되어야 한다.

#### 다. 세계사의 시대구분

- 909.1 原始時代 (石器時代, 史前時代) Primitive history
- .2 古代 -약 499 AD Ancient history
- .3 中世 약 500-약 1499 Medieval history
- .4 近世 약 1500-1899 Modern history
- .5 20世紀 1900-1999 20th century
- .51 第1次 世界大戰 1914-1918 World war I
- .54 第2次 世界大戰 1939-1945 World war II
- .6 21世紀 2000- 21th century

#### 라. 각국 역사의 시대구분

각국 역사를 전개하는 1차 패킷은 시대로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불란서는 자세히 전개하고 있으나, 기타 국가에 대한 기호는 시대구분의 의미보다 지역구분의 의미가 더 강하다.

#### 마. 문학의 시대구분

KDC 문학류의 기본적인 열거순서는 DDC와 마찬가지로 주류(문학류) + 언어(국어구분표) + 문학 형식(문학형식구분표) + 문학 시대(문학시대구분표)로 나타난다<sup>36)</sup>고 하고 있으나 문학 형식 구분(조기표) 다음에 각국 문학 시대구분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문학 시대구분은 각국 문학마

36)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KDC의 이해(대구 : 태일사, 2002), p.98.



다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 언어의 문학 아래에서의 시대구분은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sup>37)</sup>

한국문학은 대체로 문학 형식에 관계없이 4는 고려시대, 5는 조선시대 6은 현대를 각각 나타내고 있고, 중국문학에서는 2는 고대, 4는 중세 5는 명시대 6은 청시대 7은 현대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영미문학(840)이후로는 시대 구분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840-890 각국문학은 제3위(목)까지만 전개하고 목이하의 경우에 대한 전개지시가 없어 문학의 패킷 구조가 철저히 문학+언어+형식+시대패킷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IV. 시대구분에 대한 논의

### 1. CC의 시대구분

CC는 1939년 발행된 2판에서 처음으로 핵심, 재료, 에너지, 공간, 시간 등의 다섯 가지 기본 범주의 개념을 분류의 기초로 사용하는 등 보다 깊이 있는 역동적 분류이론이 반영되었고 또한 시대구분, 지역구분, 주제구분들과 함께 일관된 순서의 원칙과 조기성의 원칙에 일치시키고 있다.<sup>38)</sup> 그리고 연대구분은 대부분 하위류 세분에 적용되었다<sup>39)</sup>

2판의 연대구분표의 문제점은 A.D. 3100년에서 3199년을 표시하는 a분자로 AA를 준 것은 3200년 이후에도 A·다음의 문자 하나를 순차적으로 부가하여 전개하려는 의도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일반 통념상으로 볼 때 문자 배열 순서상 A부터 Z까지 배열이 다 끝난 이후에 다시 AA, AB..AZ의 순서로 배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배열 체계로 생각된다<sup>40)</sup>

4판의 연대구분표에서 변경사항은 기원전 시대를 나타내는 B와 A에서 변경 되었는데, B는 기원전 9999년에서 1000년까지로 바뀌었고, A는 자연히 9999년 이전의 시대로 변경됨과 동시에 2판에서 세분하던 지질시대구분에 따라 A1(Eozoic),

A2(Palaeozoic), A3(Mesozoic), A4(Calinozoic), A5(Quaternart) 등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또한 기원 후의 각 시대에 날짜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예, 1992년 3월 32은 N92321).<sup>41)</sup>

6판에서는 연대구분표에서 시간구분표로 변경되면서 종전의 연대구분표에 주야, 계절, 기후에

37) 상계서, p.100.

38)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4 pt., 2nd ed.(Madras : Madras Library Association, 1939), p.152.

39) *Ibid.*, p.1.42.

40) 李昌洙, 상계논문, p.103.

41) 상계논문, p.106.

따른 시기 등을 나타내는 특정 시기표([T2]: Featured time)가 추가되었다.<sup>42)</sup>

CC의 특정 시기표

c	Day-time	n5	Autumn
d	Night	n7	Winter
e	Twilight		
		p	Meteorological period
n	Season	p1	Dry
n1	Spring	p5	Wet
n3	Summer	p8	Snow

또한 연대구분표에서 4판의 기원후 3100-3199을 AA로하여 배열상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6판에서는 YA 2900 to 2999 AD.; YB 3000 to 3099 AD; YC 3100 to 3199AD 등으로 변경시켜 계속되는 연대를 Y 다음에 문자를 주기하여 쓰게 함으로써 배열상의 문제를 개선하였다<sup>43)</sup>.

7판에서의 시대구분표는 일반 연대구분표인 [T]와 특정시기표인 [T2]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하나의 표로 합치되고 그 내용도 매우 상세하게 전개되었으며 연결기호도 dot(.)에서 도치콤마(‘)로 바뀌었다<sup>44)</sup>

시대구분표의 편성은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기후별 특정 시기구분으로 바람,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시기를 구분하며, 아라비아 숫자로는 일년간의 시기를 달에 따른 시기와 태양에 따른 시기를 하루의 시간대별, 요일별, 주별, 월별, 계절별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알파벳 대문자는 기원후 2400 이후는 별도로 세분하지 않고 Z에 미래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즉 CC의 시간 범주는 기상학적인 시간(일, 월, 년, 10년간, 세기)와 달(초생 달, 반달, ...)과 해(낮, 밤, 아침...)에 따른 시간, 계절, 천문력, 서력기년 등을 기호로 표시하여 열거하고 있다.

특정한 시간의 지나간 기간은 역화살표(backward arrow)로 표시하여 나타낸다.<sup>45)</sup>

한편 CC에서는 복합적인 시대구분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예컨대

u는 비내리는 날

23 은 초생 달

초생 달이 있는 비내리는 날은 23←u

N←J 는 16세기부터 20세기

N7←M9는 1890년대에서 1970년대 까지

Z←N7은 1970년대부터 미지의 미래까지 등이다.<sup>46)</sup>

42)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6th ed.(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1960), p.2.7.

43) 李昌洙, 상계논문, p.109.

44) 상계논문, p.112.

45)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7th ed., pp.72-74.

한편 CC의 서력기년을 나타내는 B에서 Z까지의 기호는 청구기호를 구성하는 도서기호를 매길 때 연대순 기호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랑가나단은 동일 분류기호를 가진 자료를 개별화하는데 유용한 순서를 유지하는 방법이 시대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연대순 도서기호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그의 도서관학 제4법칙(Save the time of reader)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sup>47)</sup>. 따라서 그의 시간구분표(Time isolates)의 A/Z는 비스코(Bisco)와 브라운의 연대순 도서기호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도서기호 매김 방법이다<sup>48)</sup>.

## 2. 문학류의 시대구분

DDC와 KDC는 문학류의 세 번째 패킷으로 시대 패킷을 사용하지만 CC는 작가 패킷을 사용한다.

DDC와 KDC는 시대 패킷으로 각국 문학아래에 전개되어 있는 시대 기호를 사용하고 2개 국어 이상일 경우에는 표준구분의 시대기호를 사용한다. 그러나 CC는 작가 패킷에 별도의 하위 패킷이 제시되지 않고 작가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연대구분기호(CD)를 사용하므로 일관성이 있다. CC에서 언어, 형식 패킷 다음에 작가 패킷을 사용한 이유는 언어와 형식이 동일한 경우에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은 작가로 생각하고, 작가를 식별할 수 있는 특성은 저자명의 알파벳순 배열과 연대로서, 저자의 출생연도는 자연적인 것이므로 저자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sup>49)</sup>

CC의 작가 패킷은 도서기호(저자 시대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작가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은 동일 저자의 작품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장점과 작가에 따라 시대순으로 배열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DDC의 경우는 작품이 발표된 시대를 기준으로 시대 패킷 기호가 매겨지므로 CC의 시대순 배열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나 동일 작가의 작품을 한곳에 모을 수가 없다. 그러나 DDC에서는 임의 규정을 사용하여 문헌의 소장 양에 따라 간단한 기호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CC에서 2인 이상의 작가에 의해 저술된 작품의 경우에는 출생연도가 가장 늦은 작가를 기준으로 기호가 매겨지므로 동일 작가의 작품이 한 곳에 모일 수 없는 점도 있으며, 작가의 출생연도를 항상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46) *Ibid.*, p.74.

47) Satija, *ibid.*, p.104.

48) 金南碩. 圖書記號(대구 : 啓明大學校 出版部, 1988), pp.22-31.

49)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7th ed., p.248.

### 3. KDC의 시대구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DC는 한국시대구분표를 조기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적어도 2판과 3판에서 사용한 것<sup>50)</sup>과 같은 조기표를 제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911.01-911.079에서 1부터 79까지의 기호를 조기표(한국시대구분표)에 전개시켜 놓고 한국 시대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시대구분표와 같이 구분한다”로 하면 조기표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 한국시대구분

- 1 원시시대
- 2 고대(상)
- 21 고조선시대 -108 BC
- 
- 7 대한민국시대
- 
- 77 김영삼 대통령 시대 1993-1998
- 78 김대중 대통령 시대 1998 - 2003
- 79 노무현 대통령시대 2003 -

또한 문학류 중 한국문학(810)은 문학 형식구분의 순서와 동일하게 전개되어 있으며 811의 예와 같이 한국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세분 전개하고 있다고 하지만<sup>51)</sup> 모든 한국문학의 세 번째 패킷인 시대구분의 의미는 배제되어 있다. 다만 현대를 의미하는 기호 6을 모든 문학형식에 사용하고 있어 현대 문학은 모두 81△.6으로 분류된다.<sup>52)</sup> 이 결과 되어 많은 량의 장서들이 집중되어 분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언어의 문학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문학은 현대문학에 시대 패킷을 철저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방법은 “한국시대구분표”의 기호를 사용하여

#### 813.6 현대(소설)

한국시대구분표 -71-79와 같이 구분한다. 와 같이 전개하면

조정래의 장편소설 태백산맥(1986년 발표)은 813.65로 분류할 수 있다. 즉 813.6(한국 현대소설) + 911.075(제5공화국 1981 - 1988)에서 마지막 기호 5를 한 것이다. 이 경우 한 작가의 작품은 처음 작품을 발표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50)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十進分類法, 修正版再刷(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68), p.xxvi

51) 오동근 등, 전개서, p.238.

52) 811.6 현대시, 812.6 현대희곡, 813.6 현대소설.

## V. 결론

본 연구는 현행 분류체계가 사용하는 시대구분(연대범주)은 특정 주제와 결합하여 주제의 범위를 특정 연대(시대)로 한정하는 방법으로서 분류표에 따라서 사용기법을 달리 하고 있는데 착안하여 각 분류표의 시대구분 방법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시대구분 방법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였다.

현행 분류표의 시대구분 방법을 검토해 본 결과

1) CC의 시간 범주는 다섯 가지 범주 중 가장 인식하기 쉬운 범주로 주제 분석과정에서 주제가 지닌 연대나 시대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연대는 물론 겨울이나 주간, 야간과 같은 개념도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UDC는 시간적 특성을 표현할 때 “ ”(겹따옴표)를 사용하여 여러 관점에서의 시대(연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CC보다 더 분명하게 시대구분을 하고 있다.

3) BC는 3가지의 시대구분표를 마련하여 도서관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DDC와 KDC는 표준구분, 역사류의 세계사 및 각국의 시대구분, 각국 문학의 시대구분의 기호가 조기성이 유지되지 않아 공통구분표의 의미가 적다.

5) KDC의 한국시대구분표는 조기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학류의 시대패킷이 엄격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현대문학의 시대패킷을 조기표와 조합하여 세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심진분류법의 시대구분 방법을 제안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